

# 유럽시장 공들이는 정의선, 커넥티드카·수소차로 공략

〈현대그룹 수석부회장〉

유럽 연간 판매 100만대 돌파 눈앞  
블루링크 서비스, 전역 확대 계획  
프랑스 기업과 수소전기차 협업도



정희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정희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이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최근 체코와 영국 등 유럽 현지 생산 판매 현황을 방문한데 이어 이번엔 현지 기업과 손잡고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현지화 전략에 나서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유럽 시장 공략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직접 유럽을 찾아 현지 공장을 둘러보고 영국 등 현지 시장을 둘러 시장 상황을 분석했다. 총괄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9월 미국을 방문한 이후 두

유럽 시장에 기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현대·기아차는 유럽 진출 이후 처음으로 연간 판매 100만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유럽 진출 이후 41년 만이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1~8월 유럽 시장 누적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 증가한 71만5050대로 집계됐다. 현대차가 9.8% 증가한 37만8834대를, 기아차가 5.9% 늘어난 33만6216대를 각각 팔았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100만대 이상은 무난히 판매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부회장은 유럽 시장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현지화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현대·기아차는 유럽 최대 통신업체인 보타폰과 손잡고 내년 초부터 유럽 시장에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기아차와 보타폰은 12일(현지시간)

영국 뉴버리에 위치한 보타폰 본사에서 김지윤 현대·기아차 아이시티(ICT)기술 사업부장과 앤 엔 탠 보타폰 엔터프라이즈 사장, 스테파노 가스토 보타폰 사물인터넷(IoT)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커넥티드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내년 초 출시되는 신차부터 자사의 커넥티드카 서비스인 '유보(UVO)'를 탑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대차도 내년 중 '블루링크(BlueLink)'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기아차는 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 등 유럽 주요 8개국에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수년 안에 32개국 유럽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초 서비스가 시작되면 유럽은 한국·미국·캐나다·중국에 이어 현대·기아차가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섯

번째 지역이 된다.

또 현대차는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수소전기차 카드도 꺼내들었다. 현대차는 최근 프랑스 굴지의 에너지 기업들과 손잡고 수소전기차 확대를 위한 협업에 나선다. 현재 세계적 산업용 가스회사 에어리퀴드 및 다국적 에너지기업 엔지 등과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MOU에 따라 3사는 프랑스에서 수소전기차와 수소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협업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전기차 기술을 가진 현대차는 최근 '넥쏘'를 내놓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를 통해 현대차는 2025년까지 프랑스에 승용차 뿐 아니라 버스·트럭 등 총 500대의 수소전기차를 공급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삼성전자, 7배 빠른 엑시노스 9 공개

그래픽 처리 40% ↑ · 전력소모 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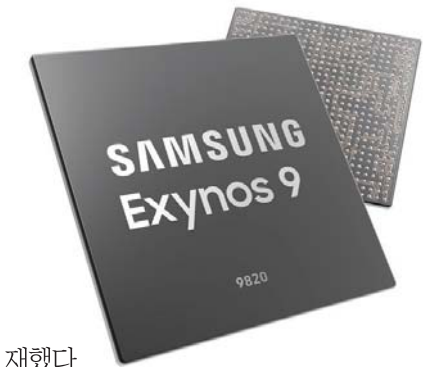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14일 신형 모바일 AP 엑시노스9(9820·사진)을 공개했다. 연내 양산할 예정이다.

엑시노스9는 인공지능(AI) 연산을 기존 제품보다 7배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영상과 음성 인식 등에 활용되는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탑재했다.

그래픽 처리 성능도 40% 향상됐다. 그래픽 프로세서(MALI-G76)를 통해서다. 전력소모도 35% 가량 개선됐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4세대 CPU 코어를 적용하면서 성능과 전력 효율도 제고했다. 옥타코어 CPU 구성을 최적화해 멀티코어 성능도 15% 향상했다.

모뎀은 1초당 2Gbps 다운로드에 316Mbps 업로드가 가능하다. 업계 최초로 주파수를 엮어 사용하는 8CA 기능도 탑



재했다.

통신모드는 2G에서 4G까지 6개를 지원한다. 전 세계 어디서든 쓸 수 있다.

허국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 마케팅팀장 상무는 "AI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모바일 AP에도 향상된 연산 능력과 효율성이 필요하다"며 "엑시노스9(9820)은 NPU, 고성능 4세대 코어, 2기가비트급 모뎀, 강화된 멀티미디어 성능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

## ‘빅스비 개발자 데이’, 국내서도 쟁긴다

삼성전자, 비즈니스 연동사례 소개  
뉴 빅스비·캡슐, 개발자 참여 늘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도 개발자 행사를 정례화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20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삼성 빅스비 개발자 데이'를 열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빅스비를 비즈니스에 연동하는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SDC 2018)'에서 빅스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발표한 연정선이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정의석 부사장과



삼성전자는 빅스비 개발자 데이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일찌감치 마감했다.

/삼성전자 빅스비 개발자데이 홈페이지 캡처

이지수 상무, 비브랩스 아담 사이어 최고 책임자가 기조연설을 맡기로 했다. 레리 핵 삼성전자 북미 AI센터장도 강연을 펼친다.

삼성전자가 빅스비 관련 개발자 행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

자는 앞으로 국내 개발자 행사를 정례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SDC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개발자 행사를 열 계획"이라며 "삼성전자 플랫폼 내 외부 개발자 참여가 늘어나는 동시에 국내 개발자 기반이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개발자 참여를 늘리는 데 열중하고 있다. '뉴 빅스비'와 '빅스비 캡슐'은 외부 개발자들이 빅스비 개발에 쉽게 참여하는데 중점을 뒀다. 내년 출시할 새로운 '갤럭시 스토어'도 개발자 편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알려졌다.

/김재용기자 juk@



LG전자 글로벌 마케터들이 국내 대형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LG전자

## LG전자, 글로벌 마케터와 노하우 공유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 어워즈’ 개최

LG전자 글로벌 마케터들이 노하우를 공유했다.

LG전자는 14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7번째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 어워즈 2018'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해외 판매법인들이 한데 모여 브랜드와 온라인, 영업 관련 분야 마케팅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32개 판매법인 마케팅 담당자

가 참석했다.

전력난에 소비전력을 조절할 수 있는 에어컨을 추천한 이라크 레반트 법인,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고객들을 위해 전국에서 오디오인 '엑스튠 가라오케 페스티벌'을 진행한 인도법인 등 사례가 공유됐다.

앞서 글로벌 마케터들은 전날인 13일 LG사이언스파크를 둘러보고 서울 시내 대형쇼핑몰 가전매장을 방문하는 등 국내 상황을 체험해보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

## KT, 'CUPS' 적용 5G 코어장비 구축

KT가 CUPS 기술을 적용한 5G NSA 코어 장비를 개발해 상용망에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전자, 시스코와 함께다.

CUPS 기술은 3GPP 국제 표준에서 정의하는 기술이다. 신호와 트래픽 처리 담당 장치를 분리해 각각 독립적으로 구축하고 확장할 수 있는 표준이다.

CUPS 기술을 적용한 5G NSA 코어 장비는 '에지 컴퓨팅'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신호처리와 사용자 트래픽 처리를 분리할 수 있어서, 자율주행과 AR, VR 등 고품질 초저지연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데 필수다.

또 KT는 코어 장비를 소프트웨어 업

그레이드만으로 5G SA(단독모드) 규격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술도 함께 개발했다. 추후 5G 표준화를 대비한 조치다.

앞서 KT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CUPS 구조 코어망을 구축하는 등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왔다. 이후 삼성전자와 시스코 등과 설계단계부터 협업했다.

이수길 KT 네트워크연구기술지원단장 상무는 "KT는 CUPS 기술 적용으로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초저지연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에 구축된 5G NSA장비는 향후 SA 서비스까지 가능하여 지속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KT는 국내최초로 5G NSA 코어 장비를 상용망에 구축했다.

/KT

## SK이노, 폭스바겐 전기차 배터리 수주

SK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 배터리 수주에 성공했다.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OEM 중 하나인 폭스바겐과 미국 및 유럽합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공급 물량, 가격 등 세부 사항은 폭스바겐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SK측은 설명했다.

이번 수주 물량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과 유럽 공장에서 생산,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에 신규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한 최종 후보지 3~4곳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유럽 지역에서도 헝가리를 포함한 신규 공장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미국 및 유럽의 신설 공장 생산 규모 및

이에 따른 총 투자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향후 폭스바겐 공급물량 변동 및 추가 수주를 염두에 두고 증설 계획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수주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SK이노베이션의 뛰어난 전기차 배터리 제조기술과 안정적 공급 능력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세계 전기차 시장 성장에 발맞춰 글로벌 영토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ujin6326@